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09호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 드러난 불교 민낯 자성 계기 될까

## [기획]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문제점

한국불교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눈 푸른 납자' 현각 스님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한국불교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소셜미디어 글이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일자 현각 스님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서툰 한국어가 와전된 것으로 떠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글은 삭제했다. 하지만 현각 스님이 한국불교계에 던진 부끄러운 민낯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본지는 스님의 글에서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언급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앞으로 3주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 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기복신앙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해야 할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잇속만 챙기려는 심산을 의미한다. 현각 스님은 이를 '기복=$'로 표현했다.

대중은 떴다방 유사포교당, 이벤트성 49재, 수능 100일 기도 등 인간이 갖는 기복적 자세를 공략한 것들에서 불교에 대한 염증을 느낀다. 노인을 상대로 위패와 불상을 판매하고 위령제를 권해 돈을 받은 뒤 불시에 문을 닫는 떴다방 포교당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수년 전 대형사찰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49재를 7번(343 천도재) 지내게 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자식을 위한 모성애를 탓할 순 없지만 수능 100일 기도 역시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에서 바른 기복행위는 아니다.

〈쌍윳따니까야〉에 따르면 부처님은 죽은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묻는 어느 마을 촌장에게 "호수에 바위를 던진 뒤 사람들이 '떠올라라!'라고 기도하면 어찌되겠느냐"고 되물어 깨우침을 줬다.

물론 기복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볼 순 없다. 스님들은 "기복을 이용해 재물을 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 ② 계급화 된 차별문화

부처님은 늘 평등한 위치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가르침을 내렸다.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역할은 구분했지만 차별하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불교에는 언제부턴가 '승려중심' 그리고 '비구중심' 문화가 자리 잡았다.

현각 스님은 'together-practice(출 · 재가 차별 없는 공동수행)'를 꼽으며 "유교적 관습 없는 환경, 남녀 · 국적 차별 없는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직후에는 본지 인터뷰서 비구 · 비구니 간 투표권 차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도 승려 간, 출가와 재가 간에는 더 큰 차별이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A스님은 "동국대를 다닐 때 선배스님들이 정각원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는 등 악습이 있었다"며 "현재는 많이 줄었겠지만 또 다른 권위주의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B사찰 신도인 이 모씨는 "재가자들은 스님을 수행자로서 존경하는 것이지 직원이 회사 사장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하지만 몇몇 스님들은 마치 출가신분을 계급으로 이해해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전했다.

### ③ 외국인승려는 데코레이션

현각 스님은 자신의 글에서 "주한 외국스님은 조계종의 데코레이션(장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외국인스님이 한국불교에서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인 외국인스님에게 종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실제 TOPIK 1급은 '물건 사기' 등 아주 기본적인 한국어수준이다. 하지만 외국인스님들이 장식품으로 전락한 이유는 그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교육시스템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문을 닫은 화계사 외국인행자 교육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각 스님의 발언을 두고 수많은 대중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특히 이 논란이 한국불교 자성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관련 기사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시원해 좋고 신나서 더 좋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어른들은 그늘을 찾아, 물을 찾아 각지로 떠나지만 순박한 천진불들은 그저 여름방학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서울 화계사는 7월 30~31일 경내서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 어린이가 법당 앞마당에 마련된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타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윤호섭 기자

# "불자대중 자각이 언론 왜곡 막는다"

##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 서울대회서 학자들 한 목소리

최근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 각종 사안을 접하지만 그 내용은 왜곡되거나 굴절되기 십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에 의해 미디어는 사실을 굴절하고 왜곡한다. 늘어나는 미디어 왜곡 현상에 대해 50여 국제언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세션이 특별히 마련돼 불교적 해법이 모색, 제시됐다.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ISMRC)는 8월 1일 서울 한양대 사회과학관서 '미디어, 종교, 그리고 공공성'을 주제로 서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선 한국불교의 통찰: 진리, 미디어, 그리고 대중'을 주제로 불교세션이 배정됐다. 불교세션에서는 이도흠, 석길암, 박병기 교수 등이 나서 디지털 사회에서 언론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재현의 위기론에 따른 미디어 분석과 불교적 대안'에서 '재현의 위기' 현상에 대한 고찰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재현의 위기란 왜곡된 사실을 접한 대중들이 이를 다시 왜곡해 재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교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미디어에 비친 가상현실이 삶의 영역에 들어온다. 현실이 미디어로 재현되며 왜곡되거나 변환된다"며 "불교적 대안은 이러한 실상을 직시하고, 잘못된 재현으로 갈등하는 것에 대해 비판, 그 현실 너머의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잘못된 재현의 원인으로 '지배하는 신화, 권력'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화 너머에 있는 일심으로 때로는 지배권력에 맞서고,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디어 공공성 확보' 해법 모색
### 불교세션 이도흠 · 석길암 등 나서
### '화엄' · '일심' 접목해 대안 제시

'21세기 미디어 윤리에 관한 불교적 성찰'을 발표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계율 정신에 근간한 미디어 윤리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율전통을 재해석한 '마음 중심의 관계윤리'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미디어는 인간들 사이의 소통 매체이고, 관계망"이라며 "관계망 자체를 직시하는 사회윤리적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원효에서 시작된 한국불교의 계율 전통은 계율 준수의 판단 기준을 마음에 두는 방향으로 정착했다. 21세기 초 미디어 상황 속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차기 과제로 남겼다.

석길암 동국대 교수는 '화엄사상으로 본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대중'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쌍방향성이며 이는 화엄으로 해석 가능하다. 화엄사상에서는 일체 모든 중생이 온전한 붓다로서 참여하는 이상세계 구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석길암 교수는 "디지털 시대 대중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자각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누구나 삶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끝으로 "화엄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대중은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참여의지와 행동이 요구된다"며 활발한 대중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 서울대회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한양대와 서울 삼정호텔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신청 조건부 대상 선정

##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7월 27일 심의 · 결정

조계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는 "지난 7월 27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 결과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됐다"고 8월 2일 밝혔다.

조건부 선정의 이유는 보고서 내용 중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속유산 선정에 대한 논리 △비교연구 등을 11월까지 보완해줄 것을 분과 회의서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등재추진위 관계자는 "등재를 위한 일련의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완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영축산 통도사, 봉황산 부석사, 천등산 봉정사,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등의 7개 사찰로,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의 신앙과 수행 및 생활 등이 지속되어 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2016년에 선정된 '한양도성'에 이어 '한국의 전통산사'를 2017년 등재 신청할 유산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등재신청서 제출 여부는 보완된 등재신청서(국 · 영문)를 11월 중 문화재위원회에서 평가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산사'는 2016년 11월 심의를 거쳐 2017년 등재신청서 제출하고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조계종과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보은군, 공주시, 순천시, 해남군, 안동시, 영주시, 양산시 등은 2014년 8월 등재추진위를 발족하고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내 ·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등재추진위는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기초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등재신청서(국 · 영문)를 보완하여 정밀하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 제 32見 종(鐘)

종(鐘)은 소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
더 아파해야 하듯이

고행(苦行)은
세상사람들의 뼈저린 고통을
덜어 줌이요
대신 아파함을 락(樂)으로
삼음이다

더 아파함이
선근공덕이요 깨어남이니
.
.
.
오늘은
왠지 ....
종소리가 더 아픈듯이
들린다

깨달음센터
(구.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